

해 외 출 장 복 명 서

연구과제명 - 출장명: “개도국 식량안보를 위한 우리나라 농정성과 확산 사업(KAPEX)” - 필리핀 공동조사를 위한 3차 현지조사 및 2020년 필리핀 사업 ROD 관련 논의

1. 출장목적

- 2019년 KAPEX 대상국인 필리핀과의 공동조사 추진을 위한 3차 현지조사
 - 필리핀 미작연구소의 연구내용 중간검토 및 아시아7개국 ODA 라운드 테이블 워크숍 발표 준비를 위한 ODA 사업 제안 관련 논의
- 2020년 KAPEX 대상기관인 필리핀 농업부 국제협력국 및 축산산업국과의 2020년 사업 ROD 관련 논의

2. 출장개요

- 출장자, 출장지, 출장기간

출장자	소속	출장지	출장기간
이운정 전문연구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필리핀 (마닐라)	2019. 9. 18 ~21 (2박 4일) * 여비는 2박 3일

3. 주요 내용

가. 2019 KAPEX 공동조사 관련

- 방문기관: 필리핀 농업부(Department of Agriculture)
- 방문일시: 2019년 9월 19일 (목), 09:00-13:00
- 참석자: Fidela P. Bongat, Maureen P. Capistrano(필리핀 미작연구소 총 2명), Elizabeth G. Padre, Ester Aida Simbajon, Rechel Macalado, Marie Flor Aquino(필리핀 농업부 총 4명)
- 주요 논의 내용 1: 필리핀 공동조사 내용 관련
 - (필리핀 측) 현재까지는 이사벨라 주 현지조사를 1회 실시하였으며, 쌀 종자 재배 농가 및 농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나 공동조사 연구비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음. 향후 이사벨라와 누에바 에시하 현지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농경연) 현지조사 시, 베이스라인 관련 데이터 수집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공동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ODA 사업을 형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기획을 위해 농가의 소득 수준, 농가당 재배 면적, 쌀 종자 구입 경로, 쌀 종자 가격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잘 이루어져야 함.

- (농경연) 또한 KAPEX 중기연수의 연수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음.
 - 연수생들이 종자 보급 및 유통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정책에 대해서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한국의 경험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공동조사 보고서의 한 부분으로 연수 보고서를 활용 가능할 것임.
 - (농경연) 2차 현지조사 시, KAPEX 연구진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향후 발굴할 사업 요소를 선정하였음. 앞선 논의에서 강조했듯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하여 **사업 운영 주체 선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KAPEX 공동조사를 통해 발굴될 사업은 크게 1) **쌀 종자 이력시스템 구축**, 2) **쌀 종자 저장인프라 구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관련 역량 강화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주요 논의 내용 2: 공동조사 연구비 지급 방법 관련
- (필리핀 측) 지난 4월 체결한 2019 KAPEX ROD를 보면 공동조사 연구비 지급 방법으로 전도금(fund hand-carry) 혹은 계좌이체(bank transfer)로 명시하였음. 그러나 농경연 측에서 계좌이체로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필리핀 농업부에서도 연구비를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때, 부패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필리핀 측) 본 사업의 시행기관인 필리핀 미작연구소의 경우, 필리핀 농업부로부터 받는 사업비 계좌가 있음. 그러나 KAPEX 사업은 다른 항목이기 때문에 그 계좌에서 연구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됨. 이러한 경우, KAPEX 사업만을 위한 별도의 계좌를 마련해야 하는데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며, 신청을 하게 되더라도 2-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함.
 - 이럴 경우 사업이 종료된 후에 연구비를 지급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논의하고 싶음.
 - (농경연)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현금 지급 이외의 방안을 찾아보아야 함. 연구원 확인 결과, KAPEX 공동조사의 연구 책임자나 연구 참여자의 개인 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이에 대한 영수증과 공문이 필요함.
 - (필리핀 측) 이러한 경우 필리핀 정부에서 부패를 문제 삼을 수 있기

- 때문에 개인에게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 (필리핀 측)페이팔이나 웨스턴 유니언을 통해 거래할 수 있음. 웨스턴 유니온은 해외송금 및 상업용 지불 서비스 전문회사로 필리핀 정부에서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임. 한국과의 ODA 사업 시에도 웨스턴 유니언을 활용하고 있음.
 - (농경연) 우리 기관에서는 페이팔이나 웨스턴 유니언과 같은 형태로 해외송금을 한 사례가 없음. 우리 기관의 **주요 거래은행인 NH 농협은행에서 웨스턴 유니언을 이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됨. 귀국 후 이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고 연구원 **재무회계팀과 상의 후 가능여부에 대해서 답변**하겠음.
 - (농경연) 이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방법의 은행 거래를 위하여 양 기관에서 노력하고 협조해야할 것임.
- 주요 논의 내용 3: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및 KAPEX 워크숍 관련
- (농경연)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국에서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 워크숍 및 KAPEX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며, 필리핀 측에서는 국제협력국 국장급 1명, 2019년 KAPEX 사업 담당자 1명, 2020년 KAPEX 사업 담당자 1명 초청 예정임.
 - 국장급 초청자는 필리핀 농업 ODA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 2개에 대해서 발표 후 11월 1일 양자회담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 추진 예정
 - 2019년 KAPEX 담당자는 2019 KAPEX 공동조사 결과와 결과를 바탕으로 발굴한 사업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임.
 - 2020년 KAPEX 담당자는 2020년 KAPEX 사업 주제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
 - (농경연) 이를 위하여 **10월 첫째 주까지** 공동조사 결과에 대한 윤곽이 나타나야 하며, 향후 **한국측 전문가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발표자료를 작성**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함.
 - (농경연) 지난 4월 논의한 바와 같이 워크숍 일정 종료 후 바로 KAPEX 초청연수를 추진하고자 함. 연수 참석자 선발 시, 워크숍 일정 고려가 필요하며 국장급 공무원이 초청연수 참석 가능한지 확인 필요함.
 - (필리핀 측) **워크숍과 초청연수** 모두 필리핀 쌀 종자 보급과 한국과 필리핀의 농업분야 ODA와 관련하여 필리핀 농업부 및 필리핀 미작연구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함. 따라서 **기존 계획보다 인원을 1명 더 추가**하기를 희망함.

- (농경연) 초청인원은 현재 바로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예산의 문제도 있으며, 다른 대상국가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음. 이 부분의 경우, 한국 귀국 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음.
- (필리핀 측) 필리핀의 경우, 공무원들도 해외출장을 위해서는 약 1달 전에 출장 관련 결재 절차를 밟아야 함. 이를 위해서는 한국 측의 공문이 필요하며, 특히 필리핀 미작연구소 연구원들의 경우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증 발급을 위해 더 많은 절차가 필요할 것임.
- (농경연) 이와 관련해서는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공문을 송부하고 필리핀 한국대사관에도 사증 발급 관련 공문을 보내어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음.
- (필리핀 측) 이번 **10월 한-필 농업협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ODA와 관련, 필리핀의 안건으로 **“필리핀 영농서비스 센터(농기계) 구축사업”을 제안**하였음. **ODA 라운드테이블 워크숍에서 본 사업 제안에 대하여 발표**해도 되는지?
 - (농경연) ODA 라운드테이블 워크숍은 대상국 내에서 사업 수요에 대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사업에 대하여 발표하고 한국과의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자리임. 한-필 농업협력위원회에서도 제안한 사업이라면 우선순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됨. 그리고 이 사업은 2018년도 한-필 농업협력위원회에서도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농경연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기획안도 작성하였음. 본 사업에 대하여 수요가 있으면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것이 좋으며, 발표 시 한-필 농업협력위원회 의제로도 제안된 사업이라고 커멘트를 주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함.

나. 2020 KAPEX ROD 및 공동조사 계약 관련

- 방문기관: 필리핀 축산산업국(Bureau of Animal Industry)
- 방문일시: 2019년 9월 20일 (금), 09:00-12:30
- 참석자: Nenita Estante, Alvin Paul Dirain (필리핀 축산산업국 총 2명), Ester Aida Simbajon, Rechel Macalado, Rowel del Rosario, Verly Dacalos(필리핀 농업부 총 4명)
- 주요 논의 내용 1: 2020 KAPEX ROD 초안 관련
 - (농경연) 2020년에 KAPEX로 추진될 사업의 사업명은 “필리핀 돼지도체 등급 기준 수립(Establishment of Philippine Pork Carcass Grade Standards Using Yield and Quality Parameters)”이며, 사업시행기관은 필리핀 축산산업국임. 2019년의 경우, ROD 체결이 지체됨에 따라 공동

조사 체결도 늦어져 사업 및 공동조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음. 2020년에는 늦어도 2월에 ROD를 체결하고 4월부터는 공동조사를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필리핀 농업부와 축산산업국의 협조가 필요함.

- (필리핀 측) 2018년도부터 모든 ODA 사업에 대한 ROD가 대통령 직속 기구(Special Authority)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체결이 가능하여 절차가 매우 복잡해짐. 이번 회의에서 ROD 초안을 완성하고 이에 대한 결재를 올리면 대통령 직속기구에서 필리핀 측 **ROD 서명자**를 결정할 것임. 2019년도와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장관이 서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농경연) 사업 ROD 초안의 내용은 미리 공유한 바 있음. 예산의 경우 우선 큰 항목으로만 구분을 하였음. 10월 초 우리나라 국회에서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 예산안을 필리핀 정부의 요구안에 맞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임.
- (필리핀 측) 초청연수 및 중기연수의 기간보다 인원을 확대시키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함. 한국의 경험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더 많은 공무원과 연구원들에게 제공하고 싶음.
 - (농경연) 인원의 경우, 다른 2020년 KAPEX 대상국과의 논의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예산안을 구체화시키는 단계에서 재논의하는 것을 제안함.
 - (농경연) 중기연수의 연수기간은 2개월인데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1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서 연수생을 파견하는 것은 불가능함.
- (필리핀 측) 중기연수의 경우, 2020년 KAPEX 주제에 맞게 축산물 도제 등급과 관련된 **기술적인 교육(technical assistance)이 교육 내용에 많이 포함되길 희망함**.
 - (농경연) KAPEX 사업 목적이 **“정책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교육 제공은 어려운 부분**이 있음. KAPEX 중기연수 역시 기술적인 세부 교육보다는 전반적으로 한국의 정책 경험 공유를 바탕으로 정책 수립과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국가별 주제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 국가(필리핀)에만 기술 교육 내용을 커리큘럼에 포함하기에는 더욱 어려움이 있음.
 - (농경연) 그러나 KAPEX 연수 과정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대상국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대한 그 수요에 맞는 현장견학 및 강의를 포함하고자 함. 향후 **수요조사 시** 원하는 강의 및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을 자세히 알려주면 연수 과정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필리핀 측) **지체상환금 부분이 ROD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임.

- (농경연) ROD 체결 후, 농경연과 공동조사 대상기관이 공동조사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농경연에서 위탁연구를 주는 방식이며, **원내 위탁연구 계약 조건에 따라 지체상환금에 대한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2019년 KAPEX 사업의 경우, ROD에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공동조사 체결 시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관련 조항을 명기하고자 함.

□ 주요 논의 내용 2: 2020 KAPEX 공동조사 계약 준비 관련

- (농경연) 4월 공동조사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이번 KAPEX 사업의 경우, 반드시 은행계좌 거래를 통해서 공동조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ROD 체결 직후 관련 결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필리핀 축산산업국에서 KAPEX 사업을 위한 계좌를 별도로 신청할 것인지 혹은 기존에 농업부에서 받고 있는 계좌로 공동조사 연구비를 받을 것인지 내부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함.
 - (필리핀 측) 축산산업국은 축산산업국 명의의 별도 계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계좌로 공동조사 연구비를 송금 받을 예정**임. 그러나 이 계좌에서 미국 달러를 인출할 수 없으며, 한국에서 미국달러로 송금 시 자동적으로 그날 환율에 맞추어 필리핀 페소로 받게 됨. 따라서 모든 거래는 필리핀 페소로 이루어질 것임.
 - (농경연) 농경연에서는 향후 ROD와 공동조사에 명기된 대로 미국 달러로 송금할 예정이며, **은행거래내역서는 향후 증빙으로 활용**할 것임. 필리핀 측에서 페소로 사용해도 되지만 향후 정산 증빙자료 제출 시, 영수증에 미국 달러도 같이 작성해야 함.
- (필리핀 측) 향후 정산 시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지? 본 사업의 경우 필리핀 정부의 감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본 제출이 어려움.
 - (농경연) 기본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자료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우 원본대조필 증명을 한 사본 제출 혹은 스캔본 제출이 가능한지 연구원 측에 문의해보겠음.
- (필리핀 측) 향후에 필리핀 외부 전문가를 필리핀 측 사업대상기관에서 선정해도 되는지?
 - (농경연) 필리핀 측에서 선정해도 되지만 사전에 한국 연구진과의 상의가 필요함.

- 주요 논의 내용 3: 2020 KAPEX와 2019 KSP 사업 연계 방안 관련
 - (농경연) 본 사업은 2019년 KSP 사업과 매우 유사한 주제이며, 중복 등을 피하고 사업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필리핀 측) 2019년 KSP 사업의 경우, 축산물 이력제와 품질 관리시스템 구축이 주요 사업 내용임.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EDCF에 **2023년 유상원조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상황임**. 2020년 KAPEX의 경우 돼지 도체 등급 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 KSP 사업의 결과를 활용하여 돼지 도체와 관련된 하나의 제도적인 사슬을 마련하고자 함**.
 - (농경연) KAPEX 사업을 통하여 발굴된 사업은 향후 2023년 농식품부 무상원조 사업으로 제안될 예정임. EDCF 사업과 사업요소가 너무 유사한 경우 중복 사업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EDCF에 어떠한 시범사업이 제안되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유무상 연계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필리핀 측) EDCF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경우, KAPEX를 통해 발굴된 사업도 유상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는지?
 - (농경연) 그럴 가능성은 없으나 먼저 사업을 연계하기 전에 KAPEX 공동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부문에서 ODA 지원이 필요한지 먼저 그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그 후 EDCF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요소 외의 사업요소를 발굴하여 농식품부 ODA 사업으로 기획하는 것도 방법임. 또한 유무상 연계의 경우, 부처간의 논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필리핀 대상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의 농식품부, EDCF, 기획재정부 등과 논의 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임.
 - (농경연) 따라서 이번 제3회 ODA 포럼이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며, 필리핀 농업부와 논의하여 이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이며 향후 사업발굴에서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자회담의 안건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